

“간편하고 든든하니까요”... ‘스나킹’에 빠진 직장인

(Snacking·간단한 식사)

더부룩하고 무거운 점심식사 대신 산뜻한 한끼로 시간·건강 ‘두토끼’ 분짜라분, 베트남식 샌드위치 등 간편·건강식 메뉴 잇따라 출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나킹(Snacking)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후에 졸음과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을 유발했던 무거운 점심식사 대신,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함으로써 주어진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나킹 트렌드에 발맞춰 간편하지만 건강한 식사 메뉴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식후 졸음과 더부룩함을 유발했던 무거운 점심 식사를 벗어나 건강하고 산뜻한 음식으로 점심 힐링 하고 싶다면 맛과 포만감, 건강함까지 다 잡은 스나킹 메뉴에 주목하자.

간편하지만 퀄리티가 우수한 메뉴를 찾는다면 종합외식기업 SF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베트남음식 전문점 ‘분짜라분’



/판다익스프레스



/분짜라분

에서 새롭게 선보인 ‘그릴드 비프 반미&웨이’를 추천한다. ‘그릴드 비프 반미 & 웨이’는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맛의 퀄리티는 물론, 푸짐한 양까지 자랑하는 정통 베트남식 샌드위치다. 쌀로 만든 바삭하고 고소한 바게트빵에 직화로 구워낸 차돌양지와 양상추, 반미 특제 소스를 넣어 현지의 맛을 살렸다. 샌드위치 주문시, 사이드 메뉴로 제공되는 웨지감자까지 곁들이면 성인 남성의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을 만큼 푸짐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 가볍게 점심을 해결하고 싶다면 건강하고 다채로운 속재료와 소스만으로 맛을 낸 샐러드가 제격이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푸드셀렉스에서 운영하는 ‘D&D 니수아즈 샐러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D&D 니수아즈 샐러드’는 구운 연어와 브로콜리, 올리브, 달걀과 함께 채

소를 곁들인 프랑스 니스 지방풍의 샐러드 메뉴로, 여름철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비타민 보충에 좋은 채로들이 듬뿍 들어 있어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를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점심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이른바 ‘데스크톱 다이닝족’을 위한 테이크아웃 스나킹 메뉴도 있다.

각자의 입맛이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샌드위치는 데스크톱 다이닝족에게 안성맞춤 메뉴다.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썬브웨이’는 8가지 채소를 기본으로 다양한 속재료와 소스를 버무려 간단하지만 포만감을 즐길 수 있는 영양만점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타키 베이컨 아보카도·스파이시 이탈리아 아보카도·베지 아보카도’ 3종은 열량이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를 넣어 건강함을 더했다. 또한 빠른 주문과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장점 덕분에 데스크톱 다이닝족이 선호하는 스나킹 푸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스나킹 푸드 중에는 프리미엄 정통 중식 메뉴도 있다. 미국 최대의 중식 브랜드 ‘판다익스프레스’는 음식의 사이즈부

터 재료, 사이드 메뉴 등 원하는 레시피만 골라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문 절차를 총 3단계로 구성해 사이즈부터 메뉴 구성까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중국식 팬인 ‘웍(Wok)’을 사용해 불맛과 향을 살려 재료를 신속하게 볶아내는 판다익스프레스의 대표 메뉴는 오렌지 치킨, 쿵파오 치킨, 허니 윌렛 쉬림프, 상하이 스테이크 등 19가지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고 섭취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점심을 빠르게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메뉴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인텔루카의 ‘니수아즈샐러드’/신세계푸드



무더위, 데미소다와 날려버리자!

동아오츠카가 오는 8월 말까지 부산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 야외 테라스 가든에서 ‘데미소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대대적 정비’

중기중앙회 25년 만에 단행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018.7.31기준·2,589종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 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

구분	조치완료				조치예정			
	개정	적부확인	폐지	합계	심의대기	연기요청	폐지대상	합계
표준수	20	455	74	549	609	1,085	346	2,040
단체수	8	21	5	34	30	28	32	90

*폐지대상(346)=적부확인대상(2,589)-확인완료(455)-개정완료(20)-폐지완료(74)-연기신청(1,085)-심의대기(609).

*적부확인 미실시(10년 이상 단체, 649종(20년 이상·13개 단체, 476종)/10년 미만: 72개 단체, 1,391종).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정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등록단체와 협의해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선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선 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 등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슬림해진 직수 정수기... 업소·사무실에 제격

코웨이 ‘시루 스탠드 정수기’

코웨이는 업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크기는 줄이고 냉수는 늘리는 한편, 정수는 직수 방식으로 무제한 용량을 구현한 ‘시루 스탠드 정수기(CHP/CP-5700R)’ (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자사의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와 비교해 사이즈를 약 6cm 줄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반면 냉수와 정수 용량은 크게 늘렸다. 냉수는 기존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 대비 1L 늘린 7L의 대용량을 확보해 냉수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도 더 많은 양의 냉수 추출이 가능하다.

정수는 ‘CIROO 2.0 필터’를 바탕으로 직수 방식을 구현했으며 용량에 제한을 받지않고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CIROO 2.0 필터는 코웨이 가 세계적인 화학 소재기업 도레이와 공동 개발을 거쳐 특허출원한 필터로 머리카락 수만분의 1이



온물질까지 제거하는 ‘인텐시브 액티브 텐스 레이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 또한 기존 CIROO 필터보다 면적을 6배 늘렸으며 정수량은 30배를 높여 RO 멤브레인 필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수가 가능하다.

특히, 냉수를 추출할 때 정수 유입을 차단해 냉수가 미지근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와 비교해 더 낮은 온도의 냉수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리하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추출구의 위치를 높였다. 또한 물 받는 공간의 높이를 대폭 늘려 사용자가 어떤 물병을 사용하든지 손쉽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렌탈로 구매 시엔 월 5만4900원(10만원 등록비 기준)이며 일시불은 199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카페베네 상반기 영업익 1.2억 3년 만에 ‘흑자전환’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반기 영업익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카페베네는 2018년 상반기 매출액 136억2700만원에 영업익의 1억2300만원을 달성했다. 반기 흑자로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 의미가 깊다.

특히 1/4분기 3억3000여만원의 손실에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4분기 4억5000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식음료 업계 성수기인 7월~8월을 맞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12일 기업회생 신청 이후 경영 효율화와 가맹점 매출 활성화 등에 주력하며 기업 정상화에 집중해 왔다.

/박인용 기자

SK매직 렌탈계정 145만 돌파... ‘2위 수성’

SK매직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렌탈 누적 계정 145만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 봄에 출시한 올인원 직수정수기, 올인원 직수얼음정수기, 모션 공기청정기, 도기버블 비데 등 신제품의 인기로 힘입어 1~7월 사이 렌탈 신규 계정이 30만을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렌탈 누적 계정 127만에서 18만 계정 순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매직은 올 한해 50만 계정을 새로 확보해 연초에 계획했던 156만보다 4만 이상 초과한 160만 이상의 렌탈 누적 계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SK매직 관계자는 “SK매직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영시스템, IT 인

프라, 판매채널, 인력, 광고 등 미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고객중심경영을 기반으로 추진한 다양한 경영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며 업계 2위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매직은 지난 2·4분기엔 1615억원의 매출을 올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했다. 이같은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약 67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